다산포럼

송재소

결혼은 만화인가?

'오감도(烏瞰圖)'의 작가 이상(李霜)이 그의 친구 박태원의 결혼식 방명록에 남긴 축하 메시지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문에 보도된 전문은 다음과 같다.

結婚(결혼)은 卽(즉) 慢畵(만화)에 틀님업고 慢畵의 實演(실연)에 틀님업다.

慢畵實演의 眞摯味(진지미)는 또다시 慢畵로 - 輪廻(윤회)한다. * 한자음은 필자가 붙였음.

이상(李霜)이 생각하기에 결혼은 만화에 틀림없는데, 신랑, 신부가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오늘 실제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통념으로 만화는, 삶의 진실을 진지하게 표현하지 않고 다소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매체로 인식되었을 터인데, 만화를 실제로 연기하는 당사자들이야 진지한 자세로 결혼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진지한 자세가 또 만화라는 것이다. 참으로 시니컬한 이상(李霜)다운 독설이다.

결혼은 언제나 축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은 결혼을 축복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떼뉴는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속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애쓴다."라 하여 결혼이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근대 러시아의 소설가 메레즈코프스키는 말하기를 "늘 현명한 인간이 되고 싶으면 결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이란 것은, 미꾸라지를 잡으려다가 뱀이 들어있는 자루 속에 손을 집어 쳐 넣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결혼할 정도라면 중풍에 걸리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여 결혼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초혼은 의무요, 재혼하는 사람은 바보요, 세 번째 결혼하는 사람은 미치광이이다."라는 네덜란드의 속담이나, "부부는 전생의 원수끼리 만난다."는 우리나라의 농담도 모두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사실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지붕 아래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가까이하면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한다."(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라 했고,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태항로(太行路)'라는 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인이 되지 말라 / 한평생 고락이 타인에서 비롯되네"(人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라 노래했다. 이렇게 서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나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이질적인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암컷과 수컷이 짝지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그것대로 또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얼굴도 닮는다는데 이렇게 서로 닮은 부부가 해로(偕老)하며 사는 모습이 실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이상(李霜)의 말과 같이 결혼이 만화같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40년 결혼생활을 한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결혼은 결코 만화가 아니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숙경

장애인의 인권 누가 지키는가

장애를 크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선천적인 것과 살다가 재해 등으로 사고를 당해 갖게 되는 후천적 장애가 있다. 선천적인 경우는 예방이나 대처에 한계가 있지만 후천적인 중도 장애는 극심한 심리변화를 겪어야 한다.

살다가 한 사람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회적인 젠더로서의 성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경우를 보는데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인권의식도 당사자들은 차이를 느낀다.

인간의 근본을 성에서 찾아볼 때 성(性)을 일차원적인 신체적인 성보다 사회적인 성(gender)에 더 의미를 두는 현대 사회이고 보면 그만큼 주어진 것보다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에 그 속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인 성은 어떤 경로로 형성될 수 있을까. 사회적 성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일련의 특질이라면 소수의 장애인 아니고는 이런 젠더 의식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고루 학습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유로 미숙하게 형성된 사회성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이를 항변하느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를 보면,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 장애 중심인지 알 수가 있다.

피해상황을 '당사자가 얼마나 거부했는가'와 '피해 후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얼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를 보는데 장애인에게 아주 불리한 잣대이다. 영문도 모른 채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에게는 피해를 보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의식과 사고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 필자가 때때로 들여다본 법정은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웠을 거라는 인정보다 장애는 고려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어떤 법조인은 장애인을 무성(無性)의 인간으로 취급하여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성토를 받기도 했다.

얼마 전 광주지역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한 협의체를 통하여 주창되고 많은 검토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유형 중에서 경제적 피해와 성적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대상이다.

한 지적장애인은 이웃에게 도장 한 번 빌려줬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채무자가 되고 집을 날리게 되는 경우를 봤다. 그러나 법은 그 장애인의 행위에만 근거하여 보증을 인정할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지적장애인은 과연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인가? 이를 위해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에 장애특성에 맞는 적용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 생활권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그 당사자만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위력'과 '위계'가 재해석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통 약자 교통수단(장애인택시)이나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이 되도록 의식도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이에게 '장애는 선택해서 입은 게 아니랍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 소장〉

기고

이지헌

슬로시티 브랜드화를 위하여

경제개발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아름다운 풍광과 전통문화자산이 있는 녹색의 땅 전남이 지금 문화브랜드로 변화하고 있다. 친환경행복마을 등 지역인프라 구축에 의한 지역활성화 및 도시인에게 현장체험과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에 그 지역 그 주민에 의한 역사· 문화·생태학적인 혼이 담긴 옛 것을 근간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이루어져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7년 12월 "슬로시티(Slowcity)국제연맹"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담양군 창평,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 장흥군 유치 등 4개 지역이 '국제인증'을 받아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담양군 창평은 고풍스러운 전통가옥인 한옥과 길게 늘어진 골목 돌담길이 보존되어 있으며, 슬로푸드(Slow Food)인 전통식품 '된장·한과·엿' 등 느림의 미식을 즐길 수 있다.

신안군 증도는 노을의 추억과 태양의 힘으로 생산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염전, 그리고 자연이 숨 쉬는 청정갯벌에서 산책하고 있노라면 시간마저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완도군 청산은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다랑어 논과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놓아 만든 구들장 논에서 황소로 쟁기질하는 모습, 죽는 사람을 '초분'이라는 무덤에 이엉에 덮어 두었다가 2~3년 후 뼈를 가려 땅에 묻는 장례풍습 등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우리 조상의 생활방식을 볼 수 있다.

장흥군 유치는 국내 최고의 청정표고버섯과 그 지목을 이용하여 키우는 장수풍뎅이,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청국장은 '슬로푸드'의 진 맛을 느낄 수 있는 여행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녹색의 땅 전남의 미래는 '희망 전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원형복원을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려진 개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적이고 전통문화가 있는 마을을 발굴하여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우월성을 찾아 차별화된 전략에 의한 친환경 관광브랜드화(Storytelling)한다면 자연의 품을 찾고자 하는 도시인들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은 더욱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천천히 사유하고, 천천히 행동하며, 천천히 기억한다면 그에 따른 추억은 행복으로 존재한다. 슬로라이프(Slow Life)처럼 생활을 느리게 즐기며 진실하게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농·어촌 학생들에 기숙사 입실 우선권 줘야

먹고 살기 어려웠던 70년대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골에서 소를 팔아 어렵사리 대학에 다닌다는 의미로 상아탑 대신 우골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요즘에 다시 유행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살벌하게 비싸진 학비에다가 기숙사조차 없는 도시에서 방을 얻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숙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제도처럼, 기숙사 우선입실 정책도 펼쳐줘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도시 아이들은 시설이 잘 갖춰진 기숙사나, 학교 근처의 자기 집에서 다니는 반면에 농촌 아이들은 기숙사는커녕 집값이 싼 먼 변두리에 자취방을 얻어 통학을 해야하니 무슨 공부가 될까.

농촌 학생들이 등급 없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숙사를 선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각 자치단체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임대아파트형 기숙사라도 지어주면 해마다 몇백 명씩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아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농촌의 부모들도 허리가 조금이라도 펴지지 않을까.

▲임중선·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인체에 치명적인 불량식품, 회수 관련법 강화 필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독소가 있는 불량식품, 위해식품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식료품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우선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더 이상 구매해서 먹는 일을 막아야 하고, 업체들은 판매중단과 함께 당국에서는 그것을 회수토록 명령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불량식품 회수비율이 고작 5~10% 선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90% 이상은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불량식품들은 기본적으로 암을 유발하거나 폐렴, 골수염 등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골다공증 혹은 신경마비 등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이런게 불량·위해 판정을 받은 후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관련 기관의 고질적인 늑장대응과 당장의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들의 비협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만약 위해식품을 방치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에 적극적이다. 우리도 불량식품 회수에 관해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사설

물 부족 심각성 인식 못하는 시민의식

광주시의 식수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최악의 장기가뭄으로 내달 중순께 부터 제한급수를 검토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번 광주시의 제한급수 검토는 지난 1992년 이래 17년 만이다. 말이 검토이지 당분간 큰 비가 없을 것으로 보여 제한급수는 시간문제다.

이번 식수공급 위기는 일차적으로 강수량 부족 때문이다. 한반도의 기상변화 등으로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면서 14일 현재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1988년 준공 이후 최저인 15.7%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복호 저수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3.4%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저수량으로는 앞으로 72일 밖에 공급할 수 없다고 한다. 주암호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저수율 39.6%에 비해 절반도 못미치는 15.7% 정도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광주시민의 의식이다. 현재 광주 시민들의 1인당 1일 사용량은 264ℓ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한급수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물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제 식수부족은 연중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식수 부족 지역에 대한 비상 급수 체계부터 다듬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를 가둬서 활용하는 수자원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댐이 모자라 홍수기의 아까운 수자원을 흘려보내고 물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제 아무리 큰 비가 내린 들 물 절약을 생활화 하지 않으면 '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상치 않은 물가,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최근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결합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생활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올 들어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음식료, 주류, 외식업계에서 두자릿수 가격 인상이 이어졌고 의약품, 세제, 중고생 참고서 등 전방위에서 생활 물가가 뛰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일부 국제선 운임을 다음달 초에 5~10%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물가도 심상치 않다. 5월 말 현재 남자와 여자 학생복의 가격은 작년 말보다 8.0%와 8.9% 각각 올랐으며 중학교 참고서의 가격은 작년 말보다 8.5%, 고등학교 교과서는 14.5%씩 급등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국제유가와 곡물가의 최근 동향이다. 원유 등 주요 국제원자재 19개 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로이터/제프리스 CRB 지수는 11일 266.17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점을 찍었던 지난 2월24일 201.16에 비해 무려 32.3%나 오른 수치다. 원유가가 상승하면 공산품과 생필품 물가가 압력을 받고, 곡물가가 오르면 식품값과 사료 값이 들썩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는 물가 잡기와 유동성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물가상승 요인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유가 급등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위기 여파로 약해진 중소기업, 서민가계 기반을 뒤흔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無等鼓

6·15 공동선언

국민의 정부 출범 3년 째인 지난 2000년 6월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대한민국 국적기가 사뿐 하게 내려앉는 순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장면이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악수 모습은 전세계에 중계됐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는 한국의 TV방송 기자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리포트 내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남·북 양측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쳐 밀고 당기는 회담 끝에 합의한 5개 항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론에 합의했다. 이어 1 국가 2 체제의 구체적인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두 정상은 합의했다.

또, 합의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한 합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09년 6월 15일의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 착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예기치 않은 상황의 흐름 속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 평화공존의 시금석이었다는 당위론과, 북핵의 종자돈 제공이라는 혹평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남과 북 모두가 2000년 6월 15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